

반크, 북가주한글학교와 한인2세 뿌리교육

NEWSIS | 기사입력 2009-11-02 07:32



【뉴욕=뉴스시스】 노창현 특파원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미국속 한인2세들의 뿌리교육에 힘을 합친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지난달 31일 북가주한글학교협의회(회장 최미영)와 미국 교과서의 한국 오류 시정과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세계화를 위해 업무협정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10년간 전세계에 독도, 동해, 고구려 등 한국 바로알리기사업과 국가이미지 사업을 추진해온 반크와 20년간 북가주에서 2세들의 뿌리 교육을 맡아온 북가주 한글학교 협의회가 '전세계 한글학교를 함께 섬겨 세계속에 한국을 바로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다.

북가주한글학교협의회는 지난해 '요코이야기'를 퇴출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한 단체로 산하에 약 50개의 한글학교, 500명의 교사, 5000명의 한글학교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다.

북가주 한글학교는 반크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반크는 한국사 교재개발, 한국문화 홍보자료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기태 단장은 “미국 교과서를 시정하는데 현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협력사업으로 2세, 3세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 서 일본해, 다케시마, 한국사 왜곡 오류를 신속히 제보받고 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010년 한국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와 관련, 차세대 재미한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네트워킹돼 글로벌 이슈인 지구온난화와 빈곤 등과 같은 주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이버 모의 유엔’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기태 단장은 이날 북가주한글학교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세계속에 한국바로알리기과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 특강을 가졌고 임마누엘 한글학교와 다솜한글학교에도 특강 및 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박 단장은 쿠퍼티노 하이스쿨에서 실리콘 밸리 한국학교 학생등 2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박 단장은 지난달 24일 워싱턴 DC, 26일 뉴욕에서도 반크활동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관련사진 있음>

robin@newsis.com

 이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2936963>

인쇄하기

취소